행안부 장관, 실종자 가족 만나 '신속·안전' 약속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제도 개선 힘쓰겠다"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전국 12개 현장 감독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천막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러 가면서 장관과 시장이 실종자 구조와 지원에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 협의회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가해자 격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현산 측이 구조대책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해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 장관은 구조대를 만나 격려하면서 실종자 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또 구조대원들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12개 시공 현장을 특별감독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중에서 공사 종류와 공정률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현장에는 각각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여부 등을 5일 이상 감독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행정·사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자율점검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노동부에 취약 현장을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붕괴 사과와 관련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한 개 동 23~38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6명이 실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고,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조기철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과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생훈 기자

민주당, 광주·전남 텃밭서 대통합 행보

간담회 통해 지지세 결집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을 기치로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본격적인 대통합 행보에 나선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18~19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복당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관영 위원장은 18일 복당 인사들인 이은방 전 광주시의원, 박용화 남구의원, 김옥수 서구의원, 홍기월 동구의원, 최무송 북구의원 등 광주 전·현직 지방의원 30여명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복당 인사,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환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19일에는 전남 지역을 돌며 복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세를 결집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민주당에 입당, 호남 인사들의 입·복당을 이끌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탈당 이력에 '페널티'를 주지 않는 대사면·대통합을 내걸고 이날까지 복당 신청을 받고 있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이형석 "미래시민광장위 광주본부 출범"

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조정식 미래시민광장 상임위원장, 이형석 미래시민광장 공동위원장 겸 광주 상임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형석 미래시민광장 공동위원장 겸 광주 상임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강화해 반드시 제4기 민주 정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도, 공공건축 가이드북 발간

기획·용역·유지관리 등 54개 업무별 체계화

전남도는 공공건축의 모든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절차 가이드북'을 도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건축 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별 적용 법령과 지침 등이 많아 일선 담당자가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하고, 관계 부서 및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제 공공건축사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은 건축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에서부터 용역·설계·공사·유지관리까지 4단계, 54개 업무별로 체계화해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업무별로 민간전문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해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절차별로 흐름과 주요 사항 등을 도표화해 시각적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가이드북은 현재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지원센터,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등 5건의 공공건축물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22개 시군과 전남도소방본부, 민간전문가, 대한건축사회 전남도건축사회 등에도 배포해 전남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격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앞으로 가이드북은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과 도민이 쉽게 보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전남도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시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약제 무상지원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서 0.1㏊ 이상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업인(친환경농가 제외)이며, 오는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지역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약제는 3월 초 사과·배 재배지 현장에 직접 배부할 예정이며, 방제 요령도 같이 안내한다. 농가는 약제를 받아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개화기 전에 1차,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개화기 중에 2~3차, 총 3회 방제하고 약제 방제 확인서와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배에 발생하며, 감염 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예찰·방제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과수화상병 약제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교육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윤봉근 22일 출판기념회… '광산이 살아야 호남이 산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윤봉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윤 전 의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자신의 책 '광산이 살아야 호남이 산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광산이 살아야 호남이 산다' 책에는 청년, 장애인, 중소상인, 다문화, 기업, 노동계의 응원의 글과 함께 고향인 광산 발전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저자의 의지를 담았다.

출판기념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시민들과의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인회 시간을 갖는다.

본행사에서는 광산구 출신답게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집필한 '광산이 살아야 호남이 산다'를 영상으로 선보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강기정 전 정무수석, 청학동 김봉곤 훈장, 트로트가수 다현 양도 영상으로 응원한다.

저자는 광주시의회 의장과 광주시교육위원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봉 기자